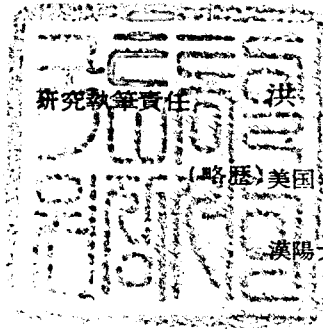


- I. 이 책자는 國土統一院의 政策調査研究計劃에 依據한 特殊課題 研究報告書임.
- II. 収録된 內容은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니며 統一問題에 關聯된 研究에 資料로 提供되는 것임.

南北韓比較 — 社會

南北韓言語概念의 異質化研究



洪 淑 妍

(略歷) 美國 韓 實 瑪 尼 亞 大 學 英 文 科 卒 (1959)

同 大 學 院 卒 (1967)

漢 陽 大 教 養 學 部 英 語 科 教 授 (1976年 現 在)

刊行責任 崔 炳 輔 (調查研究室補佐官)

國土統一院 調查研究室

목 차

I. 머릿말	3
II. 구조언어학적 분석	6
1. 異質化된 북한어휘의 분류	6
2. 문법과 形態論에 있어서의 변화	8
3. 金日成을 가리키는 은어와 존칭어	16
III. 맞춤법개혁에 따른 시대적 구분	18
1. 제 1기 (1945-1954) : # 통일안 # 시대	18
① 한글전용·漢字폐지 정책	19
2. 제 2기 (1954-1966) : # 철자법 # 시대	20
① # 조선어 철자법 # 의 요약	20
② 말다듬기 운동	26
3. 제 3기 (1966-현재) : # 규범집 # 시대	27
① # 조선말 규범집 #	28
② 문화어 운동과 분야별로 정리된 용어	29
4. 사전편찬	46
IV. 동시독의 언어격차	47
V. 남북한의 언어정책의 비교	50
1.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언어정책	51

2. 왜 한글전용은 시급한가 54

3. 외래어의 정리 59

4. 북한어는 김일성 위상화의 방편 61

5. 북한문헌의 내용분석 63

6. 대표적인 북한의 일상생활의 은어 68

VI. 참고문헌 77

I . 머 리 말

1971년 8월 12일 한국적십자사-대표인 최두선 박사가 남북 대화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처음 발표하고 이어서 역사적인 남북대화가 1972년 활발히 전개되고 있을 무렵, 필자가 경향신문사 청탁으로 처음 「남북한의 언어장벽」이란 시리즈로 칼럼을 쓰기 시작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후 남북한 언어의 격차를 처음 우리 민족이 의식하게 되었다. 그후 필자가 여러해에 걸쳐 단편적으로 연구한 남북한 언어 차이에 대한 논문 수편을 종합하여 한편의 논문으로 집대성 하던 차에 통일원의 연구비와 한양대학의 연구보조비로 금번 이 논문의 완성이 가능케되고 그것을 세상에 내놓게 된 것은 분단된 단일민족의 거리를 좁힐 수 있다는 점에서도 여간 다행한 일이 아니라고 믿는다.

부분적인 문법구조의 차이는 생겼으나 형태론에는 남북간에 큰 격차가 없고 반면 어휘에 있어 상당한 분기(分岐-divergence)를 보이고 있다. 그 차이를 우선 제 1장에서 구조언어학적으로 분석하고 특히 언어와 정치의 분리가 불가능한 북한에서 김일성을 지칭하는 은어와 존칭어는 흥미로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제 2장에서는 역사적 측면에서 맞춤법 개혁에 따른 시대적 구분을 통해 북한 언어의 변천사를 조사하였다. 1954년까지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준하는 「통일안」 시대로서 남북간에 맞춤법에 별 차이가 없었고 단지 북한에서는 1949년의 한자폐지의 단

행으로 문헌에서 漢字가 보이지 않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1954년부터 1966년까지는 『철자법』 시대라 하여 『조선어 철자법』의 발표와 더불어 視覺的으로도 현저한 頭音ㄴ, ㄹ의 사용(여성→녀성, 노력→로력), 종래의 사이시옷(헛불) 대신 사이표(화'불)가 등장하는 등, 남한문헌과 외형이 뚜렷이 달라졌다. 이 『철자법』 시대로부터 (현재까지도) 『말다듬기 운동』이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한자를 안쓰는 데서 나온 한글세대의 어휘사용에 있어서 오해를 풀기 위해 가능한 한 어려운 한자어를 고유한 우리말로 다듬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외래어와 한자어의 어휘정리사업은 『철자법』 시대를 이어 『규범집』 시대에 이르러 『문화어운봉』으로 이어진다. 이 운동은 『조선말규범집』이 1966년에 발표되면서부터 시작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규범집』 시대에 들어와서 사이표가 없어지고, 동시에 어휘정리사업은 더 한층 대대적으로 國策으로서 강력히 추진되어지고 있다.

어휘정리에 따른 사전편찬 작업도 불가피하여 그중 중요한 것은 18만 단어의 「조선말사전」 6권(1961)을 대치하기 위하여 5만 어휘의 「현대조선말사전」(1968)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제 4장에서는 역사적인 측면에서 동서독 문헌에 있어서 독일어의 경우를 잠시 살펴보았다. 동독과 북한에서 외래어로서 소련어의 영향이 지대하고, 서독과 남한에 있어서 영어의 사용이 빈번한 점은 상당한 유사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정치체제가 동독의 것보다 훨씬 극단적인데 비례하여 북한의 언어 또한 공산

주의 이념의 영향을 더욱 많이 받고 있고, 또 김일성의 독재 체제 즉 「유일사상」 등의 관계로 북한언어가 문화적으로 훨씬 더 폐쇄적으로 되어가고 있다. 비교적 잦은 동서독의 교류—인사교류, 학술교류, 통신교류(텔레비, 라디오, 우편)—등에 비할때 남북한의 교류 또한 현재에 이르러 全無하므로 언어 격차도 한반도의 경우가 훨씬 심각하다.

제 5 장에서는 남북한의 언어정책을 비교해 보았다. 그리고 단편적인 실례를 들어 내용분석(Content Analysis)도 시도했고, 억압된 국민사이에 유행하는 북한의 은어도 약간 실었다. 끝으로 현재까지 얻을 수 있는 북한언어 연구에 대한 모든 참고문헌을 나열하였다. 그러므로 이 논문이 북한언어 연구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Comprehensive) 논문이 될것을 기대한다.

Ⅱ. 구조언어학적 분석

한반도가 분단된지 3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우리말의 문법구조에는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다. 그 반면 어휘면에 있어서는 뚜렷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우선 이질화된 북한 어휘를 분류해 본다.

1. 이질화된 북한 어휘의 분류

① 다듬은 말 (말 다듬기 운동에 의하여 쉬운말, 고유어로 다듬어진 말)

추수 → 가을걷이

역우 → 부림소

관절 → 뼈마디

파마 → 뷰듬머리

살균 → 균죽이기

치차 → 이바퀴

인력 → 끝힘

폐활량 → 폐숨량

다다미 → 누비 돛자리

멸균 → 균 깡그리 죽이기

② 형태가 다르고 뜻이 같은말

채소 → 남새

상호 → 호상

화장실 → 위생실

수표 → 행표

양로원 → 양생원

보증하다 → 담보하다

귀순자 → 의거자

상이군인 → 영예군인

관상대 → 기상수문국

③ 형태는 같고 뜻이 다른 말

어버이 : 北—상징적으로 김일성을 가리키는 말 南 : 친부모

가족주의 : 北-몇몇 사람이 정실관계를 맺고 조직에 앞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내세우는 일종의 종파주의 ; 南-가족제도에 입각하는 입장에서 국가나 사회의 정책을 주장하는 주의

빨치산 : 北-혁명적 영웅의 뜻으로 좋은 의미 ; 南-악질적인 공산계릴라 .

아가씨 : 北-사또 , 마님 등과 함께 봉건사상을 나타내는 나쁜 뜻 ; 南-젊은 미혼여성

④ 방언이 문화어로 된 말

거위 → 계사니 (< 평안도)

상추 → 부루 (< 평안도)

강냉이 → 옥수수 (< 평안도)

수레 → 달구지 (< 평안도)

못쓰게 망가뜨리다 → 마스다 (< 함북)

⑤ 북쪽에만 있는 말

밥공장 (주부들이 식권을 맡겨놓고 출퇴근 끼니때 밥을 사간다)

노루마 (작업 기준량)

공민증 (만 18 세 이상 늘 휴대하는 신분증 , 북한에는 호적제도가 없어졌으므로 유일한 신분확인 방법이다 .

인민배우 (배우 급수중에 가장 높은 배우)

⑥ 북한에서 새로운 의미를 얻은 말

궁전 (종래의 왕의 집이란 뜻에서 사회적 사명을 띤 훌륭한 건축물 ; 예 : 소년 ~ , 문화 ~ , 로동 ~ , 아기 ~)

왕 (군주 → 가장 중요한 ; 예 : 철과 기계는 공업의 ~이다)

예술 (① 예술 ② 기술과 숙련의 뜻 ; 예 : ① 피바다는 불후의
~이다. ② 군사~을 습득하자)

⑦ 외래어 (주로 소련어)

그룹 → 그루빠

주제 → 제마

개 → 싸바카

집중사업 → 감빠니아

종합공장 → 품비나트

공동집단 → 품무나

소년단 → 삐오네르

(영어에서 온 말)

엔진, 테레비죤, 메달, 미터, 와이샤쓰, 씨클, 카메라

(외국지명)

항가리 → 웡그리아

루마니아 → 로므니아

북경 → 베이징

월남 → 뵐남

체코슬로바키아 → 체코슬로벤스꼬

2. 文法과 형태론에 있어서의 변화

해방후 우리말의 문법 구조에는 남북한에 걸쳐서 큰 변화는 없었다. 그러나 몇가지의 형태소가 북한말 구조에서 생성적인 과정을 보이고 있어 남북한 언어의 이질화를 실감케 한다.

① 남한에서 침체되어있는 어미들이 북한에서 개발되어 생성적인 형태소를 이루고 있다.

-히다 : 잡히다, 생각히다 (생각이 나다, 생각이 되다), 깊히다 (깊게하다)

-지다 : 그늘지다, 기름지다, 장마가 지다, 차례지다 (차례가 가다, 차례가 오다), 주렁지다 (주렁주렁 열리다)

-차다 : 숨차다, 험차다, 영광차다, 희망차다, 보람차다.

-맞다 : 방정맞다, 급해맞다, 바빠맞다.

-접다 : 눈발접다, 힘접다, 정접다

-롭다 : 해롭다, 슬기롭다, 저주롭다, 영예롭다, 고르롭다.

-적 : 인민적, 당적, 조직적.

-성 : 소심성, 대담성, 당성, 실천성.

-운동 : 북한에는 소위 사회주의 경쟁 운동으로서 「북한용어대백과」에 실린것만해도 613가지의 ~운동이 전개되고 있어 고도로 생성적인 요소들 이룬다. 예 : 새벽별 보기 운동, 고속도, 굴뚝기 운동, 국안먹지 운동, 뚜껑 벗기기 운동, 불주머니 만들기 운동, 붉은 주머니차기 운동, 빈손퇴치 운동, 여성호 탱크 헌납 운동, 천 샅뜨고 허리쳐기 운동, 한집 더지기 운동, 장기시집가기 운동, 호랑이잡기 운동.

② 북한에서 새로 만들어진 형태소 들로서 전통적인 패턴에 맞게 구성된 것.

-어 . 나셔다 (동사) : 떨쳐나셔다, 도와나셔다, 쫓기하여 나셔다, 지지하여 (반대하여) 나셔다.

-어나다 (형용사) : 부러워나다 (부러워지다), 좋아나다, 더워나다, 당황해나다.

-을데 대하여 (동사) : 전통적인 표현방법은 「-는데 대하여」이다. 예 : # 모든 사람들이 동지적으로 협조할데 대하여…… #

-을 대신에 (동사) : 표준말로 표현하면 「-어야 할데」에 해당된다. 예 : # 어른들이 갔을 대신에 아이들을 보냈다 # :

③ 명사가 사람이거나 생명이 있는 것에만 사용하던 형용사나 동사를 생물이 아닌 물건이나 추상적인 사상을 수식하는 경향이 있다. 「생활이 …을 보여주다」(즉, 생활을 통해……을 알 수 있다), 「준엄한 시기」, 「부르쥬아 사상과 투쟁하다」, 「믿음직한 조소」, 「경험이 어리다」, 「사회정치적 성격을 띤 올림말에는 ☆를 하고……교시를 얹어왔다.」

④ 외국어구의 차용번역으로부터 생성된 예 「놀다」(소련어구 # play a part #) : 작용을 놀다, 역할을 놀다, 방해를 놀다.

⑤ 모음변화

북한에 있어서 「말다듬기 운동」의 결과로 「문화어」가 남한의 「표준말」과 비교할때 달라진 모음변화 몇가지를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a) ㅣ로 끝나는 음절앞에서 ㅜ는 ㅜ로 쓰고 발음한다.

전더기 → 전테기

구더기 → 구테기

꾸러미 → 꾸레미

구덩이 → 구텡이

누더기 → 누테기

부더기 → 부테기

우렁이 → 우렷이

엉덩이 → 엉텡이

점부러기 → 점부레기

능구렁이 → 능구렷이

찌르러기 → 찌르레기

부스러기 → 부스레기

b) ㅣ로 끝나는 음절앞에서 ㅏ는 ㅓ로 쓰고 발음한다.

꿈팡이 → 꿈팽이

꼬랑이 → 꼬랭이

논장기 → 논쟁기

마상이 → 마생이

싸라기 → 싸래기

달랑이 → 달랭이

바스라기 → 바스래기

본토박이 → 본통백이

자세하다 → 재세하다

나무가장이 → 나무가쟁이

c) ㅏ나 ㅓ은 ㅣ로 쓰고 발음한다.

수줍다 → 수집다

기주떡 → 기지떡

부수다 → 부시다

부스스 → 부시시

비슬거리다 → 비실거리다

마무르다 → 마무리다

노가주나무 → 노가지나무

두루뭉실하다 → 두리뭉실하다

d) ㅓ는 ㅏ로 쓰고 발음한다.

위에 → 우에

백다귀 → 백다구

결귀 → 결구

문어귀 → 문어구

귀룽나무 → 구름나무

귀룽자리 → 구름자리

e) ㄱ과 ㄷ은 ㄱ로 쓰고 발음한다.

넌지 → 몬지

버선 → 보선

복새 → 북새

오줌 → 오좁

f) ㄷ은 ㄱ나 ㄴ으로 쓰고 발음한다.

물외 → 물오리

쇠고기 → 소고기

g) ㄷ은 ㄷ로 ㄷ는 ㄷ로 쓰고 발음한다.

치레 → 치레

철레 → 쥬레

버럭 → 버럭

계면적이다 → 게면적이다

케케묵다 → 케케묵다

h) 모음조화를 파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말들의 예

저저리 → 저자리

갈고리 → 갈구리

거머리 → 거마리

차갑다 → 차겹다

위의 모음변화에서 두가지 원칙이 작용한다. 첫째 북한에서는 될 수 있는한 현실에 가깝게 발음하고, 그대로 적는다는 것이다. 즉 발음되는대로 적고, 또 사투리에 가까운 발음이라해도 많은수의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을 채택하여 문화어의 수준에 올려놓는 것이다. 둘째, 모음조화를 파괴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문화어도 있다. 위에서 a)와 h)가 그것이다. 발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발음을 분명히 하려는 노력중의 한가지는 a)와 b)는 前音化 (frontalize) 현상이고 (ㄱ→ㄱ, ㄷ→ㄷ), d)와

r) 는 後音化 (back vowel) 현상이다 (ㄱ → ㅋ, ㅋ → ㆁ) . 모음 발음은 양극화시키므로 발음이 분명해진다.

⑥ 자음의 硬音化현상

분명한 발음을 하려는 노력은 북한말의 자음에서도 엿볼 수 있다. 자음에서는 발음되는대로 쓰는 원칙이 우세하고 된소리들 많이 쓴다.

예 : 논둑 → 논뚝

고니 → 꼬니

속새 → 속새

슬다 (벌레가) → 슬다

원수 → 원쑤

복수 → 복쑤

그그새 → 그끄새

⑦ 表音的경향 (어원에 상관없이 발음대로 쓰는 예)

예 : 녀두리 → 녀두리

들입다 (밀다) → 드렵다

벗나무 → 벗나무

넙적다리 → 녀적다리

밟다듬이 → 밟다듬이

밀두리코두리 → 미투리코투리

⑧ 表意的경향 : 이외에도 ㅅ → ㅇ으로 표준화하는 경향이 있다.

예 : 고갯심 → 고개힘

다리심 → 다리힘

셈들다 → 험들다

⑨ 과장된 규칙화 경향 :

또한 첫소리 ㄹ의 지나친 사용 (hyperform) 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a) ㄹ → ㄴ의 교정 :

예 : ㄹ두 → ㄴ두 ㄹ말 → ㄴ말
 ㄹ망 → ㄴ망 ㄹ곤하다 → ㄴ곤하다

b) ㄹ → ㅇ의 교정 :

예 : ㄹ어 → ㅇ어 ㄹ마루 (지붕의) → ㅇ마루
 ㄹ락없다 → ㅇ락없다 ㄹ정을내다 → ㅇ정을내다

▶ 남북간의 첫소리 ㄴ, ㄹ, 과 사이표의 사용법 대조

남·북	남 의 예	북 의 예
ㅇ·ㄹ	이해 (理解)	리해, 리순신, 력사, 량심, 료금, 류학, 리유, 례의
ㄴ·ㄹ	노력 (努力)	로력, 로농, 룡담, 랭면, 학원, 루각, 룡묘 (陵墓), 래일
ㅇ·ㄴ	여성 (女性)	녀성, 뉴대, 념원, 녕변, 뇨도 (尿道), 니탄 (泥炭)
ㅅ·ㅇ	깃발 (旗)	기꺾발, 머리' 말, 등' 불.

ㄴ, ㄹ의 頭音법칙이 무시되는 이유는 북한에서는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서 본음이 ㄴ, ㄹ일때는 어느 위치에서나 본음대로 적고 발음도 그와 같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954-1966년

동안에 사용되었던 사이표는 된소리를 나타내는 사이시옷의 역할을 한다.

(11) 북한 글의 제목의 서술적 경향

남한사람이 쓴 글은 대개 제목이 文句로 이루어지는데 반해 북한글의 제목은 과반수가 서술적인 文章體가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장황하고 선동적이다.

남한글의 예 : 『남북연방제도론의 진단』, 『북한의 對美 「평화협정」제의 분석』, 『북한의 정치문화』 등

북한글의 예 : 『사회정치활동을 통하여 유능한 언어학 전문가는 튼튼히 준비해 나간다』

『언어는 나라의 과학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힘있는 무기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적인 언어사상을 국어교육분야에서 활짝 꽃피우자』.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언어사용의 빛나는 규범을 따라 배우자』 등이 그것이다.

(12) 그외에 다른점

맞춤법에 있어서 남한에서 『～읍니다』로 쓰는 것을 북한에서는 『～습니다』로 쓴다. 그 예로, 입습니다, 없습니다, 하였습니다, 로 각각 쓴다.

또 『～었다』를 북에서는 『～엿다』로 나타낸다. 예 : 기엿다, 개엿다, 배엿다, 되엿다, 쉬엿다, 회엿다, 하였다. 즉 어간의 모음이

1. 개, 개, 개, 개, 개 1. 인 경우와 어간이 "하"일때 그렇게 적고 그외에는 북에서도 "－었다"로 적는다.

⑬ 복수(複數) 개념의 강화

한국어는 본래 수자에 대한 개념이 희미한데 최근 북한에서는 명사의 複數를 강화하여 쓰는 성향이 엿보인다.

예 : "말을 다듬는데서 단어들의 뜻과 결합관계들 고려할때 대한 김일성동지의 교시해설",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했고……" 등이 그것이다.

3. 김일성을 가리키는 은어와 손칭어

① 은 어

김일성에 관한 은어는 다음과 같다.

1. 가축돈사 (그의 집을 돼지우리에 비하여 말한다)
2. 김마두 동무 (마두 : 마적두목)
3. 김인백 동무 (인백 : 인간백정)
4. 김피내 동무 (피내 : 피비린내)
5. 대지주 (북한 토지를 강그리 차지 하고 있는 독재자 김일성)
6. 미친 싸바카 (싸바카 : 소련어로 "개")
7. 번지없는 주막 (김일성 집은 번지가 없다)
8. 사기일군 (사기꾼)
9. 산돼지
10. 새쓰게 (미치광이의 뜻)
11. "수령은 짙고 인민은 영원해"
12. 약방에 감초 (어디에나 인용되는 김일성 교시를 말함)
13. 양다리 동무 (중·소 분쟁시 김일성이 이쪽에 물었다 저쪽에 물었다 하는꼴)
14. 왔다갔다 동무 (중·소

분쟁시 김일성의 당황하는꼴) 15. 1호대상자(1호 숙청 대상자)

16. 콩떡장군(해방 이듬해 춘궁기에 콩떡을 먹는것은 김일성 탓이라고 적주하며 부른 칭호)

② 존칭어(로동신문 1976년 8.15자 1-3면만 조사한 통계)

- a)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 93 번
- b) "아버이 수령님" 혹은 "아버지 수령님" - 16 번
- c) "경애하는 수령님" - 12 번
- d) "현명한 영도자" - 9 번
- e) "백전백승의 혁명적 당을 영도하는 강철의 령장" - 5 번
- f) "영생불멸의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든 김일성" - 3 번
- g) "전설적 영웅이신 김일성" - 3 번
- h) "천후만대에 길이 빛날 불멸의 공적" - 1 번
- i) "탁월한 영도자" - 2 번
- j) "위대한 사상 이론가" - 1 번
- k) "해와 달이 다하도록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자" - 1 번
- l) "민족의 태양" - 4 번
- m) "불세출" - (여기서 쓰이지는 않았으나 세상에 태어난 적이 없는 유일한 인물이란 표현으로 가끔 북한간행물에서 볼수있다.)

Ⅲ. 맞춤법 개혁에 따른 시대적 구분

韓 민족은 「통구우스」계 몽고인 종으로 역사상 周圍의 혼혈이 불가피했겠으나 강대국에 흡수되지 않고 그들을 잘 포용하여 세계에서도 드문 단일민족으로 성장해왔다. 국토가 양단된 이후 북한이 절어온 언어정책은 결과적으로 남북의 거리를 넓혔다. 그 두차례에 걸친 철자개혁을 경계로 다음과 같은 3기로 구분하고자 한다.^①

제 1기 (1945-1954) - 『통일안』시대 (한글전용 - 폐지정책)

제 2기 (1954 ~ 1966) - 『철자법』시대 (말다듬기 운동)

제 3기 (1966 ~ 현재) - 『규범집』시대 (문화어운동)

1. 제 1기 (1945 ~ 54) : 『통일안』시대

일제시대 대부분은 二語併用生活이었고 日語 전용생활은 불과 말기의 8 년이었다. 따라서 8.15 당시 모국어에 망각까지 한 예는 소수였고 모국어문자 미해득자는 상당수에 이르렀다. 그 시기에 가장 시급한 당면문제는 급속한 국어 보급이었으며 바른 국어보급보다도 국자보급이 더한 급선무였다. 일제의 원서리를 낫은 조선어학회야말로 민족 광복의 덕분으로 드디어 출옥한 이극노, 최현배, 이회승, 정인승, 네 간부진용을 중심으로 재건하게 되었다. 이 시기에 사용된 교재는 주로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이었으니 그 규범에 따라 대대적으로 교육되고 실사되었다.

1. 주로 참고한 두문헌 : 북한언어정책의 비판 : 이해명 저 북한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통일안」은 1933년(昭和8年) 10월에 학회가 제정하여 1940년 6월에 일부를 개정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1936년(昭和11年) 10월에 사정, 반포한 「사정한 조선어 표준말 보음」도 보급되었다. 여기서 집약되는 철자법의 대원칙은 어원표시로서 현행과 같은 것이다. 남북에서 공동으로 실시한 이 규범은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이에 따라서 많은 공통점을 가지게 되었다.

북한에서는 1945년 8월 26일 평남인민 정치위원회가 행정권을 이양받았고 12월 6일 그 사이에 발족한 북조선 오도(五道) 행정국에서 학교교육임시설치요강을 발표했다. 이 조치는 식민지교육을 씻기 위한 첫 공식적 지시였다고 생각된다. 이어서 1946년 3월 23일 김일성 20개政綱 제1안에 일제잔재의 철저 숙청을 내세웠고 1948년 9월 9일 북한 정권 수립 이후 소련식 교육으로 개혁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언어정책은 1949년 9월 8일 초등의무교육제 실시와 동시에 전반적인 한글전용을 공적으로 채택한 것이 특징이었다. 1948년 9월 북한정권이 수립되기까지는 38선을 통한 왕래가 쉬워서 출판물의 유통도 순조로웠다. 이처럼 공통된 언어문자를 교육하던 남북일치시대는 1954년 9월 그들의 「조선어 철자법」이 제정되기까지 계속되었다.

① 한글전용·한자폐지 정책

1930년(昭和5年) 통계에 의하면 인구 약 1,500만에 약 1,000만 즉 68%란 많은 문맹이 있었다. 북한에서는 1948년

에 약 230 만명의 분명을 퇴치하는 성과를 올렸다고 했다.

1949년 9월 북한에서는 한글 전용—한자폐지를 단행했는데, 이는 그들의 이념과 識字운동과정에서 내려진 결론이었다고 생각되나 어쨌든 획기적인 일임에는 틀림없다. 한자를 전혀 모르는 세세대가 한자어의 어원을 가진 낱말을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잘못사용하는 경우가 많게 되었다. 즉 「식사를 먹는다<식사하다」 「두통이 아프다<두아프다<두통이 난다」가 그 예들이다. 이 시기에 북한에서 전개된 것으로서 민주화와 대중화를 부르짖는 언어정화 규범성을 높이기 위한 철자법 또는 표준말의 보급에서 어휘증가 및 문체의 미화와 정확한 의미사용과 문법의 통일등에 이르는 이른바 「말다듬기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2. 제 2기 (1954—1966) : 「철자법」 시대

① 「조선어 철자법」의 요약

최근 북한어의 어음조직, 문법구조 및 어휘구성에 나타난 변화를 고려하여, 종래 우리말의 철자법의 기준으로 인정되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적지않은 수정을 가하게 되었다.

「조선어 철자법」은 단어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지는 매개의 부분을 언제나 동일한 형태로 표기하는 형태주의 원칙을 그 기본으로 삼는다.

「모든 문서는 왼쪽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가로쓰는 것을 원칙으로 삼는다」.

자모의 순서와 그 이름 : 전통적인 24 자모를 부정하고 40 자모를 인정하였다.

24 자모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아야어 여오요우유으이

40 자모 :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아야어 여오요우유으이

애애에예외위의와워왜웨

자음의 이름은 다음 세 가지가 다르다. 남한에서 ㄱ, ㄷ, ㅅ을 각각 "기역", "디귄", "시옷" 하는 것을 북에서는 "기육", "디을", "시웃" 으로 규칙화해 버렸다.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서 모음〈예〉가 들어있는 음절로는 〈제〉, 〈례〉, 〈혜〉만을 인정한다.

례 : 계산	계획	세계
례의	사례	례외
혜택	은혜	

「따라서 〈제〉, 〈례〉, 〈혜〉, 이외의 〈세〉, 〈제〉, 〈체〉, 〈폐〉 등은 각각 〈세〉, 〈제〉, 〈체〉, 〈폐〉 등으로 적는다.

례 :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갑 -

세 계

제 도

체 류

- 을 -

세 계

제 도

체 류

폐 회

폐 회

그러나 <揭>만은 본음대로 <게>로 적는다.

예 : 게시판 (揭示板) 게시 (揭載)

● 한자어 기원의 단어에서 모음 <니>가 들어있는 음절로는 <회>, <의>만을 인정한다.

례 :	회 의	회 망
	옥 회	유 회
	의 학	의 의

● 단어들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례 :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갑 -	- 을 -
말 씬	말 슴
벌 썩	벌 서

● 그러나 토에 있어서는 비록 <르> 다음에 된소리를 내더라도 아래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례 : (갑을 취하고 을을 버린다)

- 갑 -	- 을 -
- 르가	- 르까
- 르수룩	- 르쑤룩
- 르지라도	- 르찌라도
- 을시다	- 을씨다

어간이 <아, 어, 여> 또는 <았, 었, 였>과 어우를 적에는
 모음의 성질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 적는다.

어간의 모음이

- 1) <아, 야, 오, 아, 으, 오, 으>인 경우 ; 아, 았
- 2) <어, 여, 우, 으, 어으, 우으, 으으, 이으>인 경우 ; ...어, 었
- 3) <이, 애, 에, 외, 위, 의>인 경우 및 어간의 끝소리가
 <하>인 경우 ; ...여, 였

1) <아>, <았>으로 적을 경우

막다	막아	막았다
얇다	얇아	얇았다
오다	와	왔다
따르다	따라	따랐다
오르다	올라	올랐다

2) <어>, <었>으로 적을 경우

겪다	겪어	겪었다
넣다	넣어	넣었다
두다	두어	두었다
크다	켜	켰다
거르다	걸러	걸렸다
부르다	불러	불렀다
치르다	치러	치렀다

3) <여>, <였>으로 적는 경우

개다	개여	개였다
기다	기여	기였다
되다	되여	되였다
배다	배여	배였다
쥐다	쥐여	쥐였다
희다	희여	희였다
하다	하여	하였다

※ 합성어의 사이에 첫번째 어근의 끝소리가 모음이나 <ㄴ>, <ㄹ>, <ㄱ>, <ㅇ>인 때의 재래의 소위 <사이스>소리가 나는 것과, 둘째번 어근의 첫소리가 <야>, <여>, <요>, <유>, <이>인 때에 다시 구개음화한 [ㄴ]과 [ㄹ]이 나는 것은 2중간에 <사이표> (')를 둔다※

1) 소위 <사이스>소리가 나는것

데 : 그름' 달	기' 발	길' 짐승
나무' 배	날' 짐승	낱시' 대
내' 할	담배' 대	들' 것
들' 돌	들' 보	들' 줌
등' 불	디털' 방아	뒤' 간
문' 간	물' 것	밭' 새
브리' 짚	불' 길	배' 전
손' 등	초' 불	코' 날코

음' 집 일' 조 등

2) 소위 <사이스>소리와 다시 구개음화한 [ㄴ]나 [ㄹ]가 나는 것.

례 : 접' 이불	공' 일	낮' 일
논' 일	낫' 요강	담' 요
들' 일	대' 앞	불' 약
밖' 이슬	밭' 이랑	버들' 잎
부엌' 일	배개' 잇	숙' 잎
жат' 엇	콩' 엇	편' 옷
홀' 이불	꽃' 잎	앞' 이마
어금' 이	옷' 임자	이불' 잇

3) 한자어로서 이에 준할만한 경우에도 <사이표>를 들 수 있다.

례 : 군' 척 (郡的)	도' 척 (道的)
대' 가 (代価)	리' 과 (理科)
호' 수 (号數)	수' 자 (數字)

• 접두사와 어근 사이에도 <사이표>를 둔다.

례 : 덧' 이	새' 노랗다
짓' 이기다	시' 누렇다
홀' 이불	해' 꼭식
헛' 일	해' 초

② 말 다듬기 운동

한글전용을 실시한 후에 언어를 더 잘 다듬어 쓰는 운동을 일으켰는데 그 내용은 쉽고 분명하고 또 간결하게 말할 하며 글을 쓰자는 것이었다. 그 목적은 공산주의적인 교양에 연결시키는 동시에 국어의 분화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말 다듬기 운동은 아래와 같은 원칙에 순하여 행하여졌다.

가) 한자어와 고유어가 있을때 가능한 한 우리의 고유어를 쓴다. 예 : 근래 → 요즘, 수차 → 여러번, 과거 → 지난날.

나) 한자어나 외래어를 고유어로 풀이해 쓴다.

예 : 주지의 → 다 아는, 세브 → 던지기틀, 독백 → 혼자말,

스파이크 → 순간타격

다) 기본적인 한자어는 그냥 쓴다.

예 : 동·서·남·북, 강산, 법률, 교육, 산업,

학교, 조국.

리) 고유어로 풀이할때는 어휘의 유기적인 연관성을 고려하여 반대말, 비슷한말, 합성어 구성이 어울려야 한다.

예 : 피경 → 덩이줄기, 근경 → 뿌리줄기, 근사(영화용어) →

가까이 찍기, 대사 → 크게 찍기, 중사 → 보통 찍기

원사 → 멀리 찍기

미) 합성어일때는 어느 한쪽만 다듬어도 된다.

예 : 전기용접 → 전기땀

비) 외래어는 "라디오", "미터", "샤쓰"와 같이 국제화된

용어외에는 기본적으로 고유어로 바꾼다.

시) 일어의 잔재를 근절한다.

예 : 운농화 → 헌갑구두, 시아게 (仕上) → 밭손질

이러한 발다듬기 운동은 제 2기에 들어서 새로운 문화운동으로 발전해서 더욱 철저하게 전개되어 갔다. 이, 발다듬기는 한자어와 일어 및 문체들 주 대상으로한 것인데 문화어에는 외래어까지도 그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3. 제 3기 (1966 - 현재) : 『규범집』 시대

1958年 3月 金科奉시대가 끝난뒤 언어정책에 대한 방향은 전환되기 시작했는데 그 공식적인 표명은 1964년 1월 3일 언어학자들과의 간담석상에서 한 김일성 교시였다. 이것은 1966년 5월 14일 교시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호해 살려나갈데 대하여』에서도 「문화어」를 중심으로 거듭 천명되었으며 여기서 제시된 기본원칙은 앞으로의 새로운 정책에 진로를 결정한 것으로 주목된다. 이에 따라 1966년 7월에 공포된 「조선말 규범집」은 1954년의 「조선어철자법」에 대한 개정이었으며 약 10년만에 제 2차 개정을 하게된 것이다. 이것은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에서 전국에 공포한 것으로 보아 종전보다 강력히 시행하려는 뜻이 엿보인다. 이 1966년은 전면적인 기술 혁신과 문화혁명을 수행하고 인민생활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려 발달된 사회 경제공업국으로 도달한다는 임무를 띄우고 1961년부터

시작한 제 2차 7개년 계획의 후반기에 속한다. 일반적으로 공산국에서는 언어를 중요시하지만 두 차례에 걸친 교시의 내용은 문자개혁, 한자어, 외래어, 한자교육, 철자법, 언어정화(문화어), 어문교육 등 언어문제 전반에 대하여 소상히 방침을 제시한 것이다. 「조선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몇가지 문제」(1964, 1.3. 담화)란 표제로된 이 교시는 우선 문자개혁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의 문자개혁에 대한 논쟁이란 아마도 金料奉의 풀어쓰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민족분단과 과학문화의 저하등의 이유를 들어 반대한 것이 잘한 일이었다고 단정했다. 다만 이를 연구했다가 조국통일 이후에 가서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① 「조선말 규범집」

「조선말 규범집」은 김일성교시(1966. 5. 14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좋게 살려 나갈데 대하여」)에 따라 1966년 6월에 제정하여 동년 7월 30일에 출판, 공포했다. 「맞춤법」, 「띄어쓰기」, 「문장부호법」, 「표준발음법」의 4부로 되어있고 각기 총칙과 세칙의 여러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1954년위 「조선어 철자법」을 재정비한 것으로서 특히 띄어쓰기를 더 세밀하게 규정하고 표준발음법을 더 확충하여 규범화한 것이다. 이것이 「조선어 철자법」과는 그다지 큰 차이가 없으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비하면 실질적으로 적지않은 변혁이라고 하겠다. 「맞춤법」은 제 7장 28항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은 총칙에서 가로쓰는

원칙을 규정한 점과 세칙에서 대략 다음과 같은 것 등을 고치겠다.

(1) 준성은 적지 않는다 (제 13 항)

예 : 가다 (가ㅎ다), 다정타 (다정ㅎ다), 레컨대 (레ㅎ컨데)

(2) 종전에 쓰던 사이표 (') 는 모두 없앤다 (제 18 항)

예 : 그믐달 (그믐' 달) 기밭 (기' 밭) 덧이 (덧' 이)
해초 (해' 초)

(3) 한자어의 르두음이 변한 것을 인정한다. (제 26 항)

예 : 나팔 (라팔) 나사 (라사) 남색 (람색)
유리 (류리) 로 (노)

㉔ 문화어 운동과 정리된 어휘들의 분야별 실례

㉕ 문화어 운동

북한은 「문화어」, 즉 평양말을 중심으로 한 「민족어의 발전을 위해」 1966년 6월 이래 내각직속 국어사정위원회와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지도처 및 언어학연구소 산하 18개 전문용어 분과위원회를 동원, 해당 부문 용어들에 대한 말다듬기 연구토론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매주 2~3회에 걸쳐 「로동신문」, 「민주조선」이란 신문지상에 게재하고, 이에 대한 독자들의 의견과 증지를 모으고 있다.

본 자료집에 수록되어 있는 말다듬기 연구토론 내용들은 1966년부터 1973년 5월까지 그동안 500회에 걸쳐 지상에 게재된 내용들을 전문 용어별로 분류한 것으로 국어 정화를 위해 북한

즉이 그 중 가장 알맞는 말들이라고 선택된 어휘들이 소위 북한식 민족어로 연차 확정되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북한의 국어정책으로 인해 남북한에는 언어 자체에 있어 현저한 가치관의 격차를 초래하였음은 물론, 동일 용어에 대한 해석상의 견해차마저 유발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민족 분열을 심화시키는 비극적 요인으로까지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북한 정책을 고려할 때 우리는 언어의 순수성과 민족적 특성을 살려 민족 분화를 발전시키는 데에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더구나 남북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분야의 다방면적 교류라는 당면 과제를 풀고 풀 때 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문제이다.

⑥ 말다듬기 전문용어 ②

18개 분과위원회 명단

전 문 용 어	분 과 명 단
의약학, 의학	의약학 용어 분과위원회
금속	금속 " "
생물	생물학 " "
농학	농학 " "
물리, 수학, 화학	자연과학 " "
건설, 수리	건설수리 " "
전기, 체신	전기체신 " "

2. 여기에 수록된 용어중 최종적으로 결정된 용어도 있고, 또 말다듬기 운동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므로 후에 수정된 것도 있음을 말해 둔다.

전 문 용 어	분 과 명 단	
일반어	일반 용어	분과위원회
기 계	기 계 "	"
경 공업	상 공업 "	"
상 품이 품	상 품이 품 "	"
문 학예 술	문 학예 술 "	"
사 회과 학	사 회과 학 "	"
체 육	체 육 "	"
수 산해 양	수 산해 양 "	"
운 수	운 수 "	"
지 질, 지 리, 광 업	지 질광 업 "	"
임 학	임 학 "	"

◎ 분야별로 정리된 용어

<일상용어>

가축이김공장 (피혁공장)

겉곡식 (피곡, 겨를 벗겨내지 않은 곡식)

경어 (輕語, 가벼운 말, 敬語의 반대말)

똘바르다 (마음이 줌스럽고 야멸치다)

팍밥 (도시락밥, 밥곽에 넣어 파는 밥)

꾸리다 (꾸미고 설비하다, 장식하다)

기본고리 (전체를 좌우하는 중요부분)

나비내기 (누에씨를 받기 위해 종자고치에서 나비를 나오게 하는 일)

거리나무 (가로수)	나드는곳 (출입구)
손기척 (노크)	불맞이찬 (샤워실)
내민대 (발코니)	얼음꿀 (아이스크림)
직관물 (전시물)	얼음과자 (아이스케키)
끌신 (쓰리빠)	천구호 (프랑카드)
벽신문 (벽보)	창문보 (카멘)
소리판 (레코드)	벽소설 (벽에 부치는 간단한 폰트)
꽃대기 (리봉)	알림판 (게시판)
들모임 (원족, 소풍)	전기중 (베르)
사무원 (공무원)	인민학교 (국민학교)
격술 (태권도)	공민증 (주민등록증)
호상 (상호)	알촉만년필 (볼펜)
대한말 (왕가물)	큰불 (홍수)
다락논 (다랑이로 된 논)	다그치다 (재촉하여 내몰다)
닭공장 (양계장)	닭알 (달걀)
떨쳐나서다 (일어나 앞서다)	내오다 (마련하다)
똑딱단추 (호크, hook)	두리에 (돌리에, 주변에)
놀다 (역할, 작용방해 등의	
단어와 결합하여 「한다」의 뜻, 예 : 큰 역할을 놀다. 귀중한	
작용을 노는 기계부속이다)	
늑거리 (정가보다 싸게 파는 물건)	
양강도 (兩江道, 북한의 도단위 행정구역 재조정에 의하여 자강	

도와 더불어 새로 생긴 도명)

량권(糧券, 국가에서 발행된 식량을 대신하는 증표)

매고리(중첩, 예:사건의~)

매대(売台, 상품을 벌여놓고 파는 자리 간단하게 꾸민 매점)

몸매띠(코르세트)

복쭈(양갓음 하려는 생각, 복쭈(復讐)와 복수(復讐)는 구별한다)

비날론(나일론의 일종)

비라리(구구한 말로 남에게 무엇할 청하는 것)

사양공(가축의 사양을 맡은 노동자)

선동하다(나쁜 의미가 아닌 좋은 뜻으로 쓰이며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도록 대중의 자각과 마음을 불러 일으키는 행사를 말한다)

신심(信心, 믿는 마음)

앞머리(냉면의 곱배기, 지조없는 여자를 일컫는다)

여성광부(여자광부)

우심하다(더욱 심하다)

우에서(위에서)

원쭈(자기 또는 자기나라에 해를 끼치는 사람, 원쭈(怨讐)와 원수(元首)는 구별한다)

이악하다(감쪽하고 영리하다, 기를 쓰고 달라붙는 기세가 굳세고 끈덕지다)

<북한제도에서 온 특수어>

20 호 (사람몸에 기생하는 虱을 가리키는 말로서 북한당국이 「내각결정 20 호」로서 이잡기운동을 벌인 이래 이를 20 호라 부르게 되었다.)

社勞靑 (사회주의 노동청년동맹의 약칭으로 1964년 5월 12일 「民靑」을 「社勞靑」으로 개편하여 개칭하였다.)

誦報會 (신문이나 잡지등을 읽고 독후감을 발표하는 모임으로서 주로 신문이나 金日成의 연설문을 읽고 이 모임을 가진다.)

企業所 (생산, 교통, 운수, 유통 기타 경제분야에서 독립적으로 경영 활동을 진행하는 사업체)

桂冠賞 (「月桂冠」의 뜻으로 여러 사람중에서 특출하여 일정한 영예 상으로서 예컨대 문학작품중에서는 「인민 계관상 작품」 따위가 그것이다.)

국제열차 (평양과 모스크바간 혹은 평양과 북경간의 직통열차를 말하는 것으로 모두 週 2회 운행된다.)

밭머리총회 : (북한의 농촌에서 하루의 작업이 끝난후 농민들을 밭머리에 모아놓고 진행하는 작업평가회의를 말한다.)

셋벌보기운동 (북한에서 성행하는 많은 운동중의 하나로서 농민들이 새벽벌을 보면서 일터에 출근했다가 저녁벌을 보면서 귀가한다는 운동.)

11 호병원 (북한 인민군의 종합병원을 가리키는데 6.25때 사용하던 명칭.)

10 호상점 (黨 및 정부고위층을 대상으로하는 특수상점으로 평양역 전에 있다.)

< 어린아이 이름 >

여자 : 꽃눈이	미나리	진달래	은별	꽃송이
참매	첫순	새날	불산	
남자 : 금플	한범	슬기	보람	용한
억세	바위	솔이	노을	수리
아침	세찬			

- 놀림자 -

남자이름 : 한솔 (이)	한걸 (이)	
한범 (이)	한산 (이)	
여자이름 : 금별 (이)	은별(이)	새별(이)

- 접미사들 맞춘것 -

남 : 철이	범이	힘이
여 : 옥이	분이	순이

< 체육용어 >

군중체육 (생산력 증가를 위해 하는 체육)

달리기 대회 (「마라톤」경기 같은것)

집단체조 (마스게임)

국방체육 (사격, 활쏘기, 무선통신 등 국방을 위한 체육)

노동체육 (등산, 야영, 중량들기, 팔굽펴기, 친삼뜨기등 노동력
증가를 위한 체육)

민속경기 (우리민족 고유의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그네

씨름, 널뛰기, 궁술, 출당기기, 석탄 땀이치기, 연피우기

등을 말함)

가위발뛰기 (공중에서 가위처럼 다리를 활리면서 뛰는 넓이뛰기
의 일종)

(축구용어)

오른쪽 공격수 (라이트·윙)

오른쪽 방어수 (라이트·풀·백)

오른쪽 중간 방어수 (라이트·하프·백)

좌내 공격수 (레프트·인너)

왼쪽 공격수 (레프트·윙)

왼쪽 방어수 (레프트·풀·백)

중앙 공격수 (센타·포드)

중앙 방어수 (센타·하프)

중앙으로 꺾어차기 (센터링)

모서리킥 (코너·킥)

(농구용어)

가슴연락 (체스트·패스)

긴 연락 (롱·패스)

(배구용어)

던지기 볼 (셋브)

순간타격 (스파이크)

<영화용어>

움거지움 (각색) 글읽히기 (대사연습)
원형 전경 영화 (파노라마영화)
군데찍기 (특대사)
가까이 찍기 (근사)
극말 (대사) 혼자달 (독백)
크게찍기 (대사) 보통찍기 (중사)
멀리찍기 (원사) 그림영화 (만화영화)
번쩍화면 (프랏슈 카트) 범취찍기 (중사)
외물이찍기 (트랙크아프) 영화필립관 (꼬삐)
올려찍기 (상승촬영) 부신빛 (하레이손)
사이쉬기운동 (간헐운동) 소식영화 (뉴스영화)
대낮빛 (수광) 둘러찍기 (트랙크 백)
내리막찍기 (하강촬영) 찍음새 (플란)

<동업 : 사과이름>

북청 (국광 - 동기는 地名에서)
황주 (홍옥 - 지명)
송화 (축 - 지명)
구월 (옥 - 계절)
덕성 (인도 - 지명)
허천 (메리샤스 - 지명)
단풍 (왜남 - 색깔)

향사과 (스테만와인 샤프 - 냄새)

< 언어학 (지금 쓰는 말 - 다듬은 말) >

주어 → 임자말

술어 → 풀이말

보어 → 보탬말

감동어 → 느낀말

삼입어 → 끼움말

접속술어 → 이음풀이말

종결술어 → 마침 풀이말

합성술어 → 합친 풀이말

직접보어 → 바로 보탬말

간접보어 → 건너 보탬말

피규정어 → 매김 받는말

< 경제학 >

위약금 → 어김 돈

전도금 → 미리준 돈

전수금 → 미리 받은 돈

적립금 → 세운 돈

감가상각금 → 탕은몫 메꿀돈

기금 → 밑돈

원가 → 본 값

보수 → 손질

수입 → 들이기 (부기에 한해서)

지출 → 내기 (부기에 한해서)

결제 → 치르기

분할결제 → 나누어 치르기

환치 → 옮겨 놓기

수채 → 값 달기

제시안 → 셈 자리 표

대응계시 → 맞셈 자리

입고 → 들이기

출고 → 내기

이관 → 옮겨 주기

경영손실 → 밑진돈

철수재산 → 거두어 들인 재산

출금 → 돈 내기

대부금 → 주어진돈

차입금→빚돈

< 물리학 >

용량→둘이 (량)

열용량→열둘이

비습→전습누기

비전하→전습전기량

비체적→전습부피

감도→느낌도

광원→빛섬

초점→보임점

전기용량→전기둘이

비중→전습무게

비저항→전습저항

비점도→전습 끈기

비열→전습열

광 → 빛

광광→찬빛

허초점→헛보임점

< 화 학 >

유욕→기름점질

공기욕→공기점질

플라스크 (화학실험에 쓸 수 있도록 만든병) →실험병

구저플라스크 (밑바닥이 둥근 플라스크) →둥근밑실험병

평저플라스크→평밑실험병

분기플라스크 (가지 달린 플라스크) →가지달린 실험병

삼구플라스크→세 아구리 실험병

테트르트 (김잡이 하거나 또는 공기를 통과시키지 않고 불질을 가열하는데 쓰는 병. 아구리가 대포의 포신처럼 옆으로 쏙 뻗어나와 있다) →김잡이 실험병

비커→실험고뿌

포백→바래기

알콜램프→알콜등잔

응고→영어굳기

< 기상·천문 >

뢰우→우뢰비

전조뢰우→마른우뢰

원퇴 → 먼 우리	근퇴 → 가까운 우리
범람기 → 범람철	범람호 → 범람늪
구하상 → 옛강바닥	구하상흔적 → 옛강바탕자리
구형하상 → 모난 강바닥	고수위 → 높은물높이
저수위 → 낮은물높이	가정수위 → 계산물높이
가류량 → 계산흐름량	실수위 → 실지물높이
실류량 → 실지흐름량	일식 → 해가림
월식 → 달가림	부분식 → 한쪽가림
부분일식 → 해 한쪽 가림	부분월식 → 달 한쪽가림
완전일식 (혹은 개기일식) → 해 다가림	
완전월식 (혹은 개기월식) → 달 다가림	
금환식 → 가락지가됨 혹은 고리 모양가림	
류성 → 별찌	정오 (오정) → 한낮
진정오 (혹은 진오정) → 참한낮	자정 → 한박

< 수산 · 해양 >

파도 → 물결	파장 → 물결 길이
파속 → 물결 속도	파고 → 물결 높이
파저 → 물결 밑	파압 → 물결 압력
파능 → 물결 움직임	파력 → 물결 힘
파형 → 물결 형	파면 → 물결 면
파정 → 물결 마루	파동선 → 물결 마루선
파방향 → 물결 방향	장파 → 긴물결
단파 → 짧은물결	풍파 → 바람물결
해안파 → 기슭물결	천해파 → 얕은물결

심해파 → 깊은 물결
맹수대 → 찬 물살기
온수대 → 더운 물살기
풍성류 → 바람 흐름
경사류 → 비탈 흐름
투명도 → 맑음도

한류 → 찬 물 흐름
난류 → 더운 물 흐름
표층류 → 겉 층 흐름
중력류 → 무게 흐름
수심도 → 물 깊이 지도
수색 → 물빛

< 의 학 >

청진 → 살펴 보기
촉진 → 만져 보기
시진 → 살펴 보기
보세 혈관 → 심 피 혈
소순환 → 작은 (피) 돌기
폐순환 → 폐 (피) 돌기
순환장애 → 피 잘 안 돌기
살균 → 균 죽이기
관절 → 마디
견갑 관절 → 어깨 마디
고관절 → 넓적 다리 마디
관절낭 → 마디 수머니
관절순 → 마디 시울
관절지 → 마디 가지
지합제 → 땀 멎이 약
수렴제 → 가다 붙임 약
조혈제 → 피 만 들기 약
강장제 → 보약

타진 → 두 드려 보기
망진 → 바라 보기
분진 → 불어 보기
대순환 → 큰 (피) 돌기
체순환 → 몸 (피) 돌기
호흡 → 숨 쉬기
폐활량 → 폐 숨 량
별균 → 균 깡 그리 죽이기
주관절 → 팔 굽 마디
관절근 → 마디 살
관절강 → 마디 안
관절와 → 마디 오목이
발전제 → 땀 내 기 약
해열제 → 열 내 림 약
진정제 → 가 라 앉 힘 약
완하제 → 약 한 설 사 약
절장 → 배 인 상 처

자창→찢린상처
렬창→찌진상처
해수욕→바다물미역
광선욕→해빛쬐이기

< 생물학 >

중장→가운데뱃
전위→앞먹이주머니
후위→뒤먹이주머니
조학→새학
경맥→어깨줄
전중맥→앞가운데줄
둔맥→물기줄
호맥→활줄
문맥→갈라진줄
기문→숨구멍
유충→새끼벌레
환절→고리마디
농면→겨울잠
변태→모습같이
불완전변태→덜된모습같이
피부선→껍질샘
한선→땀샘

< 섬 유 >

견신→늘임
저견신→작은늘임

할창→빠개진상처
좌창→찌낀상처
일광욕→해빛쬐이기

후장→뒤뱃
중위→가운데먹이 주머니
어류학→물고기학
포유동물학→짐승학
주맥→엄지줄
후중맥→뒤가운데줄
횡맥→가로줄
지맥→가지줄
간맥→사이줄
성충→엄지벌레
혹각→더듬뿔
체절→몸마디
하면→여름잠
완전변태→완전모습같이
선→섬
유선→젖샘
피지선→기름샘

고견신→큰늘임
초고견신→더큰늘임

한제빛 → 고무쇠기 빛,

튀츠까 → 들임 솜막,

신직 → 바로서기

성정 → 몬지 털기

첨유 → 기름먹임

약연사 → 털 끈실

런전, 런선 → 꼬치 짓기

교착섬유 → 짝대기

함진도 → 몬지 깎도

비면 → 솜손지

강연사 → 털 끈실

방적 → 실나이

< 제지 (製紙) >

기초지 → 바탕종이

화지 → 그림옴김종이

절단파지 → 찌락종이

짜이즈지 → 불먹인 종이

유색가공지 → 색가공종이

원고지 → 원고종이

신문지 → 신문종이

통기 → 김 넣기

본증해 → 두벌 삶기

후지 → 두꺼운 종이

권지 → 담배 종이

내유지 → 기름견딜 종이

전화지 → 그림 옴김 종이

크레프지 → 주름 종이

교착제 → 붙임약

도포제 → 바름약

초벌 증해 → 애벌 삶기

박엽지 → 얇은 종이

카본지 → 검정 종이

< 상품명 >

남방링 → 번호 짝개

접철식의자 → 접결상

가점복 → 집 옷

기성복→해논옷

런닝그→땀받이

남방셔쓰→반소매적삼

원피스→외동옷

투피스→동강옷

가자스카트→잔주름치마

잠바스카트→조끼치마

프리썩스카트→주름치마

나이프→상칼

포크→살저갈

스푼→오목술갈

립자만년필→알촉만년필

샤프→알연필

계수기→셈틀

< 문 학 >

단상→토막생각

런시→이음시

런시조→이음시조

방랑시인→떠돌이시인

쟝르→갈래

프로트→줄거리

에피소드→결애기

스철 → 문제

유모아 → 익살

아이로니 → 비양 (조)

< 음 악 >

휴지부 → 쉼표

선불 → 가락

음역 → 소리너비

음구 → 소리목

음정 → (소리) 사이

피치카토주법 → 출튀김법

조현법 → 줄고르기

발현악기 → 뜯음줄악기

타현악기 → 치는줄악기

< 미 술 >

명암 → 검밝기

명암제조 → 검밝음새

농담 → 짙음새

갈필 → 마른붓질

습필 → 젖은붓 (질)

근경 → 가까운 경치

중경 → 가운데 경치

원경 → 먼 경치

전경 → 앞경치, 온경치

4. 사전 편찬

해방 후 북한에서는 단 두 개의 국어 사전이 편찬되었는데 1961년판 「조선말 사전」에는 18만 어휘, 1969년판 「현대조선말 사전」에는 5만 어휘만이 실렸다. 이 두 사전은 내용에 있어 판이하게 다르다. 그러나 1969년판은 발다듬기 운동의 결과 漢字가 잔 자도 없고 학술전문용어, 옛말, 사투리, 「퇴폐적 사상 표현」(예: 「社交댄스·아가씨」), 고유명사 등이 다 빠졌다. 흥미로운 점 하나는 공산주의 사회의 정치성을 띤 일부 어휘에는 별(☆)표를 하고 김 일성의 인봉구를 꺾은 활자로 장황하게 덧붙인 것이다.

그 외에 조선어 소사전(1956), 조선어 철자법 사전(1956.12.30), 조선어 외래어 표기법(1956.1.10), 조선어 문법 3권(1960~1963) 등이 있다.

IV . 동서독의 언어격차

분단국으로서 독일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점이 많다. 언어에 있어서도 동·서독간에 文法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어휘면에서는 많은 차이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한가지 다른 점은 그간 독일에서는 文化交流가 있었고 상호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 동독에서는 서독의 표현, 개념따위를 모방 혹은 類推(analogy)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우선 동독(면적 108,300 km², 인구 1,700 만)과 서독(면적 248,000 km², 인구 5,900 만)이 한자리에 모임을 가질때 동일언어를 말하는 동서독 사람간에 이해가 될 만치 못해서 통일민족인가를 의심하기에 이른다는 것이다. 新生語와 略字가 많이 생겼을 뿐 아니라 종래의 어휘가 뜻이 많이 달라졌다고 한다.

아래 표는 辭典 Duden을 참고했다.

서독 Duden(Mannheim 1954)	동독 Duden(Leipzig 1957)
1. Aula (단수)의 복수형 : Aulas	Aulen
2. 문화용어 "Asthetik"의 뜻 : 美에 대한 연구	예술적 창조와 일반적 원칙에 대한, 그리고 예술 본질에 대 한 과학
3. 정치용어 Faschismus : 비민주적인 민족주의 국가개념 (파쇼주의)	자본주의의 편협한 애국주의적 공공테로적 현상
4. 종교용어 Blasphemie : 신성모독	사람이나 승상할만한 풍습, 신 념에 대한 모욕이나 조소

늘째로는 동독의 사회적 변화와 더불어 사라진 말들이다. 예로 빈민굴 (Armenhaus), 바·결 (Bardame), 쾨더케이트 (Kartellverband), 수업료 (Schulgeld), 산아제한 (Geburtenregelung) 등을 들 수 있다.

세째로 동독은 서독의 표현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 그 동기는 대개 외곡된 것이기는 하지만 재미있는 현상이다. 서독에 #Musical#이란 말에 근거하여 #Palastical#이란 쇼 (Revue-schau)가 생겼고 우베·욘손 (Uwe Johnson)의 작품 「야곱에 대한 추측」 (Mutmassungen um Jakob)이라는 제목을 따라 「율리아에 대한 추측」 (Mutmassungen um Julia)이라는 동독의 한 영화칼럼이 생겼다.

또 서독의 「슈피겔」 (Spiegel)지를 본따서 동독의 「Berliner Zeitung」지가 인터뷰가 끝날때마다 #Wir danken Ihnen für dieses Gespräch#를 골잘 즐겨쓴다. 네째로는 외래어 문제인데 서독에서는 영어, 동독에서는 소련어가 많이 쓰인다. 일반 대학에 준 영향은 소련어보다 영어쪽이 더 크다. 재미있는 것은 서독에 영어와 독일어의 잡종어가 생긴 것이다. #Killen#이나 #Texter#는 英語幹에 獨語尾를 붙였다. 소련어는 소련에서 돌아온 동독 간부층에서부터 퍼져나왔고, Kombinat, Initiator, Intelligenz (사회계급에서) 등의 정치용어가 많다. 라다츠 (F. Raddatz)는 마지막으로 그의 논문에서 동독 정치가들의 연설문을 분석하였는데, 그들의 연설문 내용은 대개 감정적이고 불

합리한데가 많고,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선봉적 어휘를 끌라쓰고
있으며 인간성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말하고 있다. 또
그의 사고방식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증거로써 병사의 사용빈도가
높고, "나"라는 말대신 "우리"라는 말을 잘 쓰고, 특히 "인민"
이란 말은 가장 즐겨쓰는 단어중에 하나라고 지적했다.

V. 남북한 언어정책의 비교

한반도가 분단된 지 31년 동안 남한과 북한은 동일언어를 사용하면서도 판이하게 다른 언어정책이 채택되었고 그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많은 언어 변화가 생겨 상호간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허다하다.

남북간에 있어 우리말의 문법 구조에는 아직도 큰 차이가 없으나 어휘면에서는 새로운 말, 뜻이 달라진 말들, 서로 다른 외래어 침투로 인해 (남한에는 영어, 북한에는 소련어), 사실상 듣는 사람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해도가 훨씬 낮다.

1972년부터 시작된 남북대화가 별 진전을 보지 못했고 근년에 와서 좌절 상태에 빠진 것도 언어 장벽이 그 이유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가족」이냐 「합작」, 혹은 「주체성」과 같은 말의 개념은 남과 북의 함축성이 전혀 다르다. 한 귀절의 표현을 단적으로 보아도 그것이 북한적인 표현인가 아닌가 알아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남 : 「꽃다발을 증정한다」, 북 : 「꽃묶음을 안겨준다」) 특히 북한말에는 소위 사회주의 혁명사상이란 것이 말끝마다 나타나고, 말투는 「투쟁적」이어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돌탕을 쳐 죽이자」, 「미제의 자를 뜨자」) 이런 포악한 표현들이 신문지상에 버젓이 쓰이고 그 결과 북에서의 언어는 날로 거칠고 호전적인 비어 쪽어가 늘어나고 있다. 그들은 「고운말」은 「부르쵸아식, 봉건주의적 표현」, 또는 「아양

며는 말투, 략 한어, 탐불시 활용 있다. 요침대, 북한은 언어를 당
정책의 도구로 오용(誤用)하고 있다.

언어란 본래 대중의 의사소통의 매개체, 학문 연구의 수단이라는
이중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남한에서는 후자인 자유스런 학문
연구에 치우쳐 있고 북에서는 전자인 한글 전용을 통한 대중계몽
과 정책시달에 총정진하고 있다.

그뿐 아니라 김 일성은 언어를 자기 개인의 이상화의 한 방편
으로 이용하고 있다. 모든 역사와 문화는 그 개인 자신의 혁
명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가르치고 있고, 전통적 민족
문화는 완전히 무시되어 단군도, 세종 대왕도, 충무공 청신도, 3.1
독립 선언문도 북한 사람들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민족어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북한은 그 정도(正道)
에서 엄청나게 탈선하고 있다. 그들의 탈선은 통일후를 생각하면
바로 우리자신의 문세이기도 하다.

한국에서도 언어정책에 있어 그 우유부단한 태도를 버리고 시국
에 맞는 확고한 언어정책을 정립하되 특히 대중문화권내에서의 한
글전용과 외래어 정리에 온갖 정력을 기울여야 하겠다.

1. 한반도의 상황에 맞는 한국적 언어정책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그 나름대로 언어순화를 위한 언어정책
을 가지고 있다. 언어정책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면 첫
째 국가가 최대한의 간섭을 하는 전체주의 국가들의 경우와 미국

이나 영국처럼 언어의 자연추세 (natural drift of language) ,
국민의 관용법 (The Doctrine of Usage) 에 맡겨두고 국가는 완
전히 무관심을 보이는 형이 있다.

전자의 예로 소련과 그 위성국가들 들 수 있으며, 외래어에
대해 극단적인 배척을 하여 국가적인 열병으로 시달렸던 나치독일
이나 뭇솔리니의 이태리의 언어정책도 있지만 오늘날 북한의 독재
적인 언어정책은 역사적으로 그 전례^③ 를 찾기 힘들 정도로 극단
에 이르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 일성의 입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다 "교시"라 하여, 인간문헌에 있어 가장 신성하게 여겨지는 성
서 구절보다도 더 우상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책시달이 고위층
에서부터 말단지부에까지 일사천리로 전달되는 북한 사회에서는 언
어의 규범화 획일화에서는 최대의 능률을 올리고 있다. 학자들의
의견이 다를 수 없고, 언어는 학문연구의 수단이라는 본래 기능은
무시되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인 한반도의 적화 통일외 "무기"로
서 사용되고 있을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방이후 한국의 언어정책은 서구의, 특히 "영
어법"을 타고 들어온 새로운 구미식 언어학 이론의 영향으로 위
의 두 가지 유형 중에 영미식, 관용법에 의존하여 왔다고 볼 수

3. 동서독의 언어 격차가 우리 한반도의 경우와 비슷하나 독일
에서는 인사교류(친지 방문), 학술교류(공동학회), 라디오, 텔
레비전의 상호 시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우리의 언어 장벽
이 더욱 심각하다.

있다.

영어에 있어 한 예를 들면, "It is I"가 맞느냐 "It is me"가 맞느냐고 할 때 과반수 이상, 즉 100명중에 70명이 "It is me"로 말한다면 그것이 표준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이 문제에서 문법학자들의 의무는 국민에게 이러한 추세를 계몽시키고 후자들 국민들이 마음놓고 쓸 수 있게 하여주는 것이다.

이를 태면, 전체주의 언어정책이 흘러가는 강물의 코스를 마음대로 정하고 바꾸고 한다면, 관항법은 그 강물의 정 코스는 그냥 내버려두고 (natural drift), 강물이 범람하거나 혼탁해지지 않고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강둑을 보완하거나 정수(淨水)작업을 해주는 것과 같다.

관항법이란 이상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장시일이 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한정된 기일내에 달성해야 할 때에는 너무나 비능률적인 것이 흠이다. 우리에게서 통일이라는 과업이 앞에 놓여 있다.

미국이나 영국의 자유정신^④만을 모방할 수 없는 현실이고, 오히려 강력한 언어통제를 위한 국가기관 (L' Academie Francaise) 을 두고 있는 불란서식이 좀 더 우리에게 적합할 것이다.

4. Baugh, Albert A History of the English Language, (Appleton-Century-Crofts, Inc. N.Y. 1957), p.325

"Englishmen have always been moved by a spirit of personal liberty in the use of their language, A policy of noninterference appeals to them more than one of arbitrary regulation."

그러면 우리 현실에 맞는 고유한 한국적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위의 두가지 유형을, 즉 관용적인 미국식과 불란서의 강경책의 절충이고 새로 설립될 국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편으로는 언어학자들이 단결하여 관용법에 의한 언어의 원칙을 세우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강력하게 그 정책을 밀고 나아가는 방향일 것이다.

2. 왜 한글전용은 시급한가

해방 후 한국에 있어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문제는 한글전용이나, 한자혼용이나 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 이래 1969년까지는 한자혼용을 해오다가 다음 5년간(1969~1974) 한글을 전용하였고 그후 지금까지 약 2년간 한자의 수를 상용 1800자로 제한하는 하였으나 다시 중고교 교과서와 일간 신문에 한자가 부활되었다.

그후 1976년 4월부터 박 대통령의 국어 순화운동에 대한 추구가 있었으나 아직도 대중 문화권내에서 한글전용의 절대적인 필요성이, 특히 식자층에서, 인식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고, 정책결정자층에서도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기만 하다. 여하간 필자는 한글전용은 하루속히 실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언어정책은 자활화정책이었다. 장기적인 계획에 앞서 한글전용과 한자혼용 사이를 가늠질해보았고, 어떤 경

우에는 정책의 중점을 양자의 일방에 두어보기도 했다. 그 배후에는 국어학자들간에 관점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통일을 전제한 언어정책에 있어서 학파마나 제 아집만 내세우지 말고, 학자, 정부, 국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국가의 최대공익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통일정책과 병용하여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유신적 언어정책을 촉진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한글학회나 학술원, 어문교육연구회와 같은 기존학회들 기초로 한 국어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며,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선의 높은 차원에 두고 장관이나 연구소장 이하 어떠한 인사 이동에도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고부동한 기구로서 발전시켜야 한다. 이 연구소에서 채택되는 정책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학자의 협조를 얻어 정부가 실천에 앞장서서 강력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글전용을 하부속히 실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한글전용은 쉽고, 빠르고, 경제적, 과학적이므로 젊은 세대가 필연적으로 택하게 될 길이나. 그리고 우리의 대중문화권내에서 한자의 부활은 시대의 역행이다. 특히 신문의 한글화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간섭하여야 할 부분이다. 신문이란 상업주의에 흐르기 쉽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 대중이 신문도 못 읽는 우민정치를 한다는 해외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민, 특히 기성세대의, 의식 구조는 모르면서도 아는체, 읽지 않고도 읽은 체하는 병이 있다.

그러나 요사이 중·고등학생들은 솔직하게 신문을 읽게 해 달

라. ㅁ교, 즉 한글전용을 해 달라고 매일 한글학회에 호소해 온다고 한다. ㅁ학교 ㅁ라 하면 될 것을 왜 ㅁ学校 ㅁ라 써서 신문을 못 읽게 하는가. ㅁ선생 ㅁ이 ㅁ글 가르치는 사람 ㅁ이지 어디 ㅁ먼저 (先) 대어난 사람 (生) ㅁ인가. ⑤ 말로만 해도 의사소통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늘, 그 말을 음(音)대로 한글로 나타냈다고 왜 이해를 못한단 말인가 그러면 한자를 못 보는 장님은 우리 한국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말 방송만 들어도 전부다 알아 듣는다. 국어 공부보다도 영어 공부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 현실 속에서 영어 공부에 소모되는 정력만해도 아까운데 어느 세월에 그 한자를 다 배울 것인가 대학교를 나와도 신문을 제대로 못 읽게 된다면 그런 분자는 마땅히 버려야 한다.

중공에서도 지금 한자가 대폭 간소화 되어서 우리의 한자보다 훨씬 간단하고 그들은 조만간 한자를 폐기하고 로마자를 채택할 계획이라 한다. (1972년부터 고려하고 있다)

한문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한문 연구는 별도 과목으로 가르칠 수도 있고 대학에서 고전 연구를 위한 전공 분야로 정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한글전용은 통일 정책에 유리한 방향이기도 하다.

15. 한글전용의 체계적인 학설에 관해서는 허 응이 지은 ㅁ우리 말과 글의 내일을 위하여 ㅁ (과학사 1974년 3월)를 참고할 것.

북한이 한글전용을 먼저 하였다고 우리가 그들을 본뜬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시작은 먼저 하였으나 제대로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이다. 어떤 부문에 있어서는 잘 되는 점이 있으나, 또 어떤 면에서는 잘못된 점이 있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북에서는 현대 과학이나 학문 예술을 하는 언어로서 발전시키는 데에는 실패하고 있지만 대중에 공산주의 교육을 강행하기 위해 한글전용을 강요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⁶⁾ "우리말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북과의 언어 교류는 그 사상성 때문에 당분간 지양하는 것이 좋다" 하고, 또 공동으로 남북한의 문법을 정리한다면 어떤 면에서는 "북을 의식해야 하므로" 하고 꺼려하는 눈치를 보이며 그때까지 한국에서 언어정확을 부지런히 하여 통일대비작업을 철저히 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나 필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남북의 공동연구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한다. 접촉이 있어야 문제점을 알게 되고 또 자극을 받아야 그 해결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게 될 것이다. 아무런 준비가 없었으나 우리는 지난 남북대화들 통하여 벌써 많은 언어장벽을 체험했고 그에 대한 연구가 단편적이거나 이미 진행되고 있다.

그들이 앞섰다는 것은 한글전용 부문에서 뿐이고 강력한 독재체제하에서 언어의 규범화가 잘 되어다는 것일 뿐인데, 그 반면 남한의 언어는 예술, 문학을 하는 언어로서 훨씬 세련되고 표현이

6. 이 혁명, 北韓國語政策의 특징과 실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교 논문 1974. 7월) p.51 ~ 52.

풍부하게 발달되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우리가 발전시키는 한국어는 민족사의 정통성을 유지, 발전시키는 면에서 북한어를 완전 압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한글학회에서 이루어 놓은 업적을 보면, 말다듬기, 쉬운말사전, 고유어 연구 등, 북한못지 않게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있다.

다만 대대적으로 국민 생활에까지 침투되지는 못하였으나 그것은 자유·민주사회에서 한 가지가 독점적으로 국민에게 보급될 길이 없었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다.

또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우리 글만 내세운다고 민족적 주체성이 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북한에서 한글전용이 철저하게 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온 국민의 뜻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 점에서 북한이 주체를 내세운다면 그것은 김 일성 개인 한 사람의 주체 논리일 뿐이다. 오히려 한국에 여러 학파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학자마다 학문의 주체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들 학자들의 다양한 전공분야를 통합하여 국가 장래의 최대의 공익을 향하여 노력한다면 북한의 언어정책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완전한 것이 될 것이다.

여하간 북한이 1949년 이래 27년간에 걸친 한글전용에 관한 대 실험을 해주었으니 우리는 거기에서 장단점을 가려내어 단점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오히려 큰 이익을 보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3. 외래어의 정리

북한의 김 일성이 서울말은 「국적없는 잡탕말」이라 비난하면서 「대남언어 개조운동」(1970.11.2)을 선언한 때에는 남한에 있어서의 외래어 남용이 그 원인이라 볼 수 있다.

오만불순한 외부의 잡음은 그 뿐이 아니라, 최근(1975.11.5)에는 일본당국의 국어심의위원회와 문화청 관계자가 「한국에 있어서의 분자 사용 등의 국어시책의 개선을 위한 검토 자료를 삼고자」 내한했다는 기사가 있었다. (한글 새소식, 한글학회 월간지 1975. 12.5) 한글학회 측의 항의에 따라 위의 인용에서 「한국에 있어서의」를 「일본에 있어서의」로 일본 대사관 측이 정정하였다고는 하나 그들의 50가지 설문은 한글전용 철자법의 해결 여부 등 우리 나라 어문정책 전반에 걸쳐 지나치게 깊이 파고 들었고, 어찌서 우리 국어 문제를 일본어 교육기관이 조사하려 하였는지 참으로 「해괴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요지였다.

외부의 압력 때문이 아니라 국어의 혼탁을 막기 위해 외래어 범람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

한글학회 큰사전에 의하면 한국에서 외래어는 2.8%이고 그 중 70%가 영어이다.^⑦ 현재는 영어 남용이 가장 심하지만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일어와 한자어가 문제가 된다. 또한 일부 한국

7. 김 현창, 「외국어 침투의 문제점 및 외래어의 연구」(1976. 6월 한국 외국어대학 세미나 논문) p.3

신문들이 남용하고 있는 외래어 중 85%^⑧가 우리말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데 커다란 문제점이 있다. 즉 언어의 주체성 문제이다.

한자어나 영어를 쓰면 권위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대주의 사상을 근절해야 한다. 민족의 자부심을 살려 제나라 말을 사용하는 것을 자랑으로 아는 정신상태가 아쉽다. 오늘날 영어가 세계를 휩쓸고 있어도 불란서와 독일인은 관광객들에게 절대로 영어로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 국민 각자의 확고한 주체성있는 자세 때문에 불어와 독일어가 오늘날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영어도 19세기 전까지는 불어나 라틴어보다 천한 글로 대우 받았으나 영국민의 자각있는 애국적 시인·작가들이 모국어들을 애용하고 발전시킨 때문에 오늘날의 막강한 위치를 굳혔다고 본다.

그러나 극단적인 외국어에 대한 배척은 삼가야 한다. 급변하는 20세기 문명 속에서 날로 좁아져 가는 국제 사회 속에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고립할 수 없기에 언어의 접촉은 불가피한 것이다. 선진국의 기술 문명과 문화가 흘러 들어옴에 따라 외국어가 따라 들어오고 그 용어의 정리 작업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새로운 용어가 들어왔을 때 그것에 해당하는 우리의 고유어가 없을 때는 「역지 고유어」를 성급히 조작하지 말고, 당분간 그

8. 상계서, p.4.

외국어를 쓰다가 서서히 적절한 우리말로 대체하는가, 무리가 갈 때에는 그 외국어를 언어당국이 사정하고 표기법을 통일하여 보급시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4. 북한어는 김 일성 이상화의 방편

북한에서는 '훈민정음('한글'이라 하지 않음) '을 민족의 글자로 인정은 하나 창조자이신 세종 대왕은 언급하지 않고 다만 김 일성이 '찾아주신 우리말, 키워주신 우리 문화어'라고만 국민에게 세뇌 교육하고 있다.

그들은 '언어는 혁명 투쟁과 건설 사업의 힘있는 무기'라 외치며, 북한의 모든 인민은 김 일성의 '혁명적 문풍'을 본받게 되어있다. 그것은 공세적이고 전투적인 언어풍이고, 거칠고 난폭하고, 파괴적인 성격을 조장시키는 잠재적 원인이 된다.

학력이 높고, 문화적 배경이 높은 사람일 수록, 농촌 태생보다는 도시 사람일 수록, 말을 더 잘 하고, 다부지고 난폭한 성격의 소유자라 한다. (한 귀순 용사의 증언)

북한에 있어서 김 일성의 이상화가 얼마나 철저하게 실시되고 있는가는 아래 몇 가지 언어 교육면에서도 뚜렷이 나타나 있다.

북한의 잡지나 신문을 보면 모든 글이 김 일성의 '교시'를 인용함으로써 시작된다. 그것은 국민학교 때부터 국어 시간에 작문의 형식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논문이 수학 문제이건 생물이건 상관없다. 김 일성이 언급하지 않는 분야

또한 없기 때문에 일반적이거나 막연한 인용구라도 반드시 갖다 붙이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어휘풀이에서 지켜야 할 원칙과 방법』⁹⁾이란 제목과 『글짓기 강좌』¹⁰⁾에서 두 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무엇보다 사상성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어휘 하나도 당 정책과 결부시킬 것, 나) 노동 계급적 선을 확고히, 다) 사대주의적 잔재를 없애고 주체성을 강조, 라) 김 일성의 『혁명적 문풍』을 나라 전투성을 보장할 것, 마) 과학성, 실천성의 원칙을 지키고, 바) 모든 학술 문화 생활에서 창조적 활동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더우거나 놀라운 최근 현상은 글의 제목들이 대중을 향한 객관적인 어조가 아니고 마치 김 일성을 직접 향하고 간곡히 호소하는 식으로 (마치 神에게 기도를 하듯이) 충성을 서약하는 것과 같은 분장체가 유행하고 있다.

예를 들면 『새해에는 다듬은 말을 널리 써 나가립니다』, 『학교에서부터 어학 혁명을 힘있게 벌리립니다』, 『피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등이 다 글의 제목이다.

이와 같이 김 일성 개인의 완전 우상화, 아니 『종교화』된 풍토에서 ; 주·월 탁아소¹¹⁾에서 낳아서부터 전쟁, 혁명 등 전투

9. 『문화어 학습(북한 계간지 사회과학출판사), 1973년 2호 p.20.

10. 『상계서 1974년 2호 p.27.

11. 북한은 1976년 6월 1일부터 『어린이 보육교양법』에 의하여 주·월 탁아소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북한의 어린이는 낳자마자 3세까지는 탁아소에서, 4~6세까지는 유치원에서 자라고 어머니들은 남자와 똑같이 새벽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노동, 정치 학습을 한다.

사상면을 배우고 훈련받은 북한의 젊은 세대, "붉은 군대"들이,
"고운말, 바른말"을 쓰고 평화를 사랑하도록 배우고 자란 우리의
남한 젊은이들과 장차 어떻게 만나서 어떤 대화를 할 것인가.

언어가 사고방식을 좌우한다 (Muller, Max "No thoughts without
language.")고 하지만, 언어생활과 사고방식이 또한 성격 형성
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막대하다. (Fichte, J.G. "국어가 국민
에 의해 형성된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이 국어에 의해 형성된다."
- "독일 국민에게 고향"이란 그의 연설문에서-). 이러한 관점
에서 통일된 조국의 내일을 생각할 때 남북간에 벌어지고 있는
언어격차 문제를 과소평가하거나 수수방관할 수만 없는 일이다.
이러한 언어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남북대화는 재개되어야 하고, 문
화교류, 통신교류,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5. 북한문헌의 내용분석

북한문헌에 있어 그 논리 전개 방법이千篇일률적이다. 그 내
용분석 (Content Analysis.)을 해보면 반복을 통한 강조가 그들
의 방법이다. 두가지 예를 들어 북한사람들의 글을 분석해 본다.

① 教条主義란 무엇인가?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는데서 「맑스-레닌주의」의 일
반적 원리나 남의 나라의 경험만을 그대로 적용해 가
지고서는 혁명과 건설을 옳게 수행할 수 없다. (a)
왜냐하면 그것은 「맑스-레닌」주의는 매개 나라의 혁
명과 건설에서 지켜야 할 일반적인 원리 기초적인 명

제만을, 제시하며 다른 나라의 경험은 구체적 실정과 조건이 다른 그 나라에서 이룩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a1)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적 원리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하며 남의 나라의 경험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대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에는 자자나라의 실정에 맞게 진행시켜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것이다. (b)

이렇게 해야만 매개 나라의 「맑스-레닌」주의의 당은 자기 나라의 현실에 맞는 혁명로선과 투쟁형태와 투쟁방도를 찾아낼 수 있고 대중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옹기 동원할 수 있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b1)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영도하여 옴에 있어서 언제나 주체적 입장에 튼튼히 서 「맑스-레닌」주의의 원리를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왔다. (b2)

그리하여 오늘 우리는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그리고 대내외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거대한 성과들을 이룩했고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에서 주체의 조국으로 천리마의 나라로 불리우고 있다. (c)

(북한용어해설집, P.7) 국동문제연구소, 서울 1972)

a, a1은 「맑스-레닌주의」의 일반원리를 각 나라마다 일률적으로 적용시켜서는 안된다는 요지이다.

b, b1, b2는 그러므로 그것을 자기 나라에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시켜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이 두개의 문장이면 뜻이 통할 것을 여러번 반복하여

시간과 공간(지면)을 메꾸기만 하고 내용은 별로없이 읽는 사람이 지루하게 느끼게 된다. 따라서 이런 논리 전개는 설득력이 희박하고 단지 세뇌작용과 조건반사작용으로 사람의 무의식을 파고드는 데는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끝까지 읽어도 정의가 분명치 않고 도대체 교조주의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애매하다.

이희승편저 국어대사전에 보면 교조주의를 「종교상의 신조」라고 했다. 대신 북에서는 「김일성의 신조」라고나 할까 즉 김일성이 북한의 종교, 國教인 것이다. 그는 북한에 있어 논문을 쓰는 방법의 한 마지막 절차로서 끝에가서는 꼭 김일성의 공적이나 그의 교시에 관련시켜야 하는 것이 공식으로 되어있다.

② 주체사상이란 무엇인가?

「주체사상이란 것은 자기나라의 혁명과 건설은 자기나라 인민 자신이 철저히 책임지는 사상 관점을 말하는 것이다. (a)」

다시 말하면 주체사상이란 「탐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과 다른 나라 경험을 자기나라에 구체적 현실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자기나라 혁명의 주인은 바로 자기나라 인민이라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나라 혁명의 성과적 수행에 철저히 복속시키는 태도 관점을 말한다. (a1)

이로부터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이란 것은 조선혁명을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체로 수행해야 하며 「탐스-레닌」주의 일반적 원리와 다른 나라의 경험을 우리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a2)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주체사상은 크게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그 하나는 자기나라 혁명은 자신이 책임지고 자주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자주적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맑스-레닌」주의 일반적 원칙을 자기나라의 구체적 형편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창조적 측면인 것이다. (a3)

이 두 측면은 서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창조적 입장에 튼튼히 서지 않고서는 자주성을 확고히 보장할 수 없으며 반대로 자주적 입장에 튼튼히 서지 않고는 창조성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체사상은 교조주의 사대주의 민족허무주의 의제 의존사상 등과는 정반대되는 것이며 그것을 철저히 배격하는 것이다.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은 1930년대 항일 무장 투쟁시기에 김일성 동지에 의해서 창시되었다. (b)

김일성 동지는 「맑스-레닌」주의에 대한 전면적이고도 심오한 분석과 우리나라 혁명운동에 대한 비판적 총화 분석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혁명은 우리 인민 자신의 힘으로 수행할데 대한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조하시고 그에 기초해서 조선혁명에 관한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전체 조선 인민들에게 조국광복의 길을 밝혀주셨다. (b1)

이 주체사상은 해방후 김일성 동지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조선로동당에 의해서 빛나게 계승 발전되었다. 해방후 공화국 북반부에서 민주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혁명, 사회주의 건설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들은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떠나서는 생각도 할 수 없으며 그것은 주체사상이 빛나게 구현된 결과 이룩된 성과인 것이다. 김일성 동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b2)

공화국 정부는 조선로동당의 주체사상을 자기 활동의 확고한 지침으로 삼고 「맑스-레닌」주의 원칙에

튼튼히 서서 모든 문제를 자주적으로 구체적 현실에 맞게 그리고 주로 자체의 힘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시종일관하였기 때문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위대한 승리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b3)

이렇게 말했다.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주체사상은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에 대한 투쟁에서도 철저히 구현되고 있다. 김일성 동지께서 제시한 남조선 혁명과 조선통일에 관한 탁월한 전략전술적 방침들은 그이의 주체사상의 철저한 구현인 것이다. 주체사상은 김일성 동지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밀바닥에 깔려 있는 근본 사상이며 그이의 혁명사상의 핵을 이루고 있다. (b4) (북한용어해설집, P.9 극동문제연구소, 서울, 1972)

a는 주체사상의 정의이고 b는 a+김일성 교시이다.

a1, a2.....는 a의 변형일뿐 내용은 동일하고 b1, b2...

는 b의 변형일뿐 내용은 동일하다.

6. 대표적인 북한의 일상생활의 은어

가락국수 : 「칼·마르크스 주의」를 비꼬는 말 아침 저녁으로 강행되는 공산주의 교양때마다 교양을 담당한 당 간부가 가락국수 뽕뚝 「칼·마르크스주의」를 부르짖는데서 생겨난 말 주로 농촌에서 유행되고 있다.

까마귀가 울어 :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까마귀가 울면 죽음이나 그밖의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풍습이 전해 내려온다. 그래서 인민재판이나 군중재판으로 무고한 주민이 총살되는등 피비린내 나는 인간 도살 참극이 계속되자 인민재판이나 군중재판이 있을 날이면 서로 「까마귀가 울어」하고 소식을 알린다.

까투리 새끼들 : 북괴 노동당의 정치선전과 괴수 김일성을 추켜세우기에 앞장선 이른바 당 정치 일군이 주둥이만 까졌다고 붙여진 이름. 괴뢰군에서 특히 유행되고 있다.

감박이는 촛불 : 당증없이 사는 비당원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 폭풍앞에 감박이는 촛불처럼 언제 강제이주, 강제 노동소행동 숙청의 회오리 바람에 휘말릴지 모르는 자신들의 신세를 한탄하는 주민(비당원)들의 표현.

개똥모자 : 레닌 모를 비꼬는 말 예 : 「저기 개똥 모자 보인다」고 하면 레닌 모를 쓴 공산당 간부가 나타났다는 뜻이다.

전본상썰 : 이른바 영예 칭호를 받은 노력 혁신자를 비꼬는 말 예 : 「그래봤자 전본상썰 주제에……」

고급과자 : 옥수수 아니면 깡수수나 깡조로 끼니를 잇는 북한 주민은 누룽지를 일컬어 고급과자라고 한다.

고급 세미나르 : 음담패설을 일컫는말. 주로 인텔리 층이 모이는 술자리에서 많이 쓰인다.

고루 고루 메달 : 소위 조국 해방전쟁 (註 : 6.25 도발)에 참가한 피뢰군에게 준 이른바 「공로메달」을 비꼬는말

공작 : 군대내에서 쓰이는 말로 품치는것. 예 : 다른 중대에 가서 공작을 해다가 중당시키라우

공 타하 동무 : 「공산당을 타도하자」는 뜻의 말로 공산당의 공 (共), 타도의 타 (打), 하자의 하등 낱말머리 글자를 모아서 쓰이는 말 예 : 저 동무도 걸으면 저렇게 설치지만 사실은 공 타하 동무와 가깝다고…… (註 : 즉 저 친구도 공산당을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뜻)

교육대 : 피뢰군내의 영창을 일컫는 별칭

꿈만갈아 : 처음으로 재일교포가 북송되어 왔을때 교포들의 사치스러운 차림새와 자유로운 생활 양식을 보고 공산 독재에 짓눌리어 헐벗고 굶주려 온 자신들의 처지를 비교해서 북한 주민들이 한탄삼아 입에 올려 유행되었던 말.

꿈은 깨어지고 : 북송 재일교포들이 북괴나 조총련이 선전하던 이른바 지상낙원의 꿈이 깨어졌다는 뜻으로 북송교포 사이에 유행했던 말. 예 : 꿈은 깨어지고 별 수 있나. 주는대로 시키는대로 할 순이지……

귀족학교 : 평양 만경대에 있는 소위 '혁명 유자녀 학원'을 비꼬는 별칭.

기술적으로 하라 : 처녀들과의 교제나 연애는 남불래하되 애인의 임신을 피하라는 뜻. 대학생들 사이에서 비밀리에 오고가는 은어

김마두 동무 : '김일성'은 마적단 두목이다'라는 뜻으로 김일성의 김 마적단의 마, 두목의 두 등 각 낱말의 머리글자만 모아서 만든 은어. 한때 북한에는 '김일성은 마적단 두목이다'라는 말이 적힌 삐라나 낙서가 발견되었는데 그 후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졌다. 누구의 착안인지는 아직 모른다.

예 : '김마두 동무 왔다는데 만나봤어?'

김인백(金人白) 동무 : '김일성은 인간 백정이다'라는 글의 김 일성의 김 인간의 인 백정의 백 등 세 글자들 모아 만들어진 은어. 이 글은 1960년 초에 원산농업대학 변소에 낙서로 발견되었는데 그 후 문세화되어 학생들이 은어로 만들어 북한 전 지역에 퍼졌다.

냄새배급 : 공산 특권층의 결혼식 피로연을 비꼴말. 일반 주민의 결혼식은 온갖 제지들 가하면서 특권층은 호화스러운 결혼식에 피로연까지 진수성찬으로 하고 있어 일반 주민은 그 냄새나 맡아야 한다는데서 생겨난 말이다.

눈치밥 : 피퇴군 사병들의 군대밥. 예 : 이래 봐도 눈치밥 5년은 먹었어.

늑대 : 낭 비서들 빈정대는 말. 주로 여자들 사이에서 유행하고

있다. 예 : # 늑대가 왜 너를 찾지? #

따지기 : 신분의 성분조사(成分調査)의 별칭. 예 : 그놈의 따지
지기 때문에 신세 망쳤어

도깨비 : 군관(軍官) : 성분이 좋대서 일 년에도 몇 계급씩 뛰
어 오르는 도깨비 인사로 진급된 정치 군관을 빈정대는 말

또 벌잠이야 : 농촌에서 강요하는 영화관람을 빗댄 은어. 북
괴가 이 농영사대를 농촌으로 파견하여 그것도 논종일 강제노동에
지친 농민들이 집에 돌아가자야 할 시간인 밤 10시 이후에 야
외 상영하는 영화를 보라고 동원하고 있어 영화구경은 커녕 벌판
에서 잠을 자게 됨으로써 생긴 말. 예 : ① # 쳇! 오늘밤 벌잠
자리 오래 # ② # 오늘 밤 또 벌잠이야..... #

도살장 : 소위 반공분자 수용소를 일컫는 말. 양강도, 자강도 일대
에 있는 반공분자 수용소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살아오지 못하
는 데서 나온 말이다.

독거미 : 당의 비밀 정보원, 사육 안전원, 또는 거미살처럼 얼기
설기 얽어 놓은 그밖의 감시망을 일컫는 말. 예 : # 독거미 조심
하라우! #

돈수대근탕(豚水大根湯) : 고기는 한점 없이 돼지 국물에 무우
를 띄운 국을 빈정하는 대학, 기숙사, 또는 피뢰군대의 은어

미친 싸바카 : # 싸바카 #란 개(兪)라는 러시아어인데 미친 개
속 김일성을 빗대어 하는 말. 예 : 미친 싸바카는 잡아야돼.

번쩍번쩍 유물론(唯物論) : 그 내용과 실제와는 달리 말로만

그럴싸하게 광을 내며 걸췌하면 내놓는 공산당의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을 비꼬는 말.

뼈다구 동무 : 평안북도 선천군 일대에서 퍼지기 시작하여 신의주, 용천, 정주, 그리고 평양에서까지 유행되었던 노래의 한 귀절. 북괴 치하의 소년단의 노래를 일명 『삐오네르가』라고도 한다. 북한지역에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인데 그 가사를 바꾸어 은밀히 유행된 것이다. 본래의 가사 : 어깨동무 새 동무 힘차게 가자 / 우리들은 나 어린 삐오네르다 / 원수님의 은혜로 자라는 우리 / 사회주의 조국의 꽃봉우리들

註 : 삐오네르는 소년단을 뜻하는 러시아어. 바뀌어진 가사 : 어깨동무 새 동무 뼈다구 동무 / 우리들은 나 어린 불쌍한 동무 / 우물쭈물하다가 불타죽는다 / 골목 골목 모여서 피난갑시다 / 이 사실을 알게된 북괴는 가사를 바꾼 노래가 시작된 평북 선천일대의 각 학교에 안전원을 풀어 그 작사자를 찾아내려고 발악을 하였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한다.

보약 (補藥) : 박수를 비꼬는 말. 북괴 치하에서 슬세를 하려거나 혹은 북괴집단의 미움을 안사고 복수를 부지하려면 보약을 먹듯 열심히 박수를 쳐야 한다 하여 만들어진 말. 만약 박수를 치지 않았다가는 반동분자 또는 불평 불만 분자로 몰리게 되므로 보약을 먹고 몸보신을 하듯 박수 역시 몸보신이 된다는데서 발상된 은어

빈 달구지 : ①말만 앞세우고 실속이 없는 사람 ②크게 소분은

났으나 실속이 없을때 ③실천이 안되는 달콤한 선전등을 비꼴때 쓰는말 예 : "체! 7개년 계획이 달성되면 이밥에 고기국 먹게 된다고 귀아프게 떠들어 대더니 또 빈달구지야?"

4대양성소 : 북괴 치하의 학교를 빈정대는말. 즉 북한학의 교육을 ①김일성 도당에게 충성을 다하는 노동 도구를 연마하는 용광로 ②어떤 교역도 참고 천디어 나가는 능력을 배양하는 노동 수용소 ③청소년들을 김일성 밖에 모르는 부지봉태한 기형아로 만드는 작업장 ④남한 침략의 대포밥을 만드는 연마장이라고 하여 생겨난 은어이다.

사람잡이 : 안전원을 일컫는 은어, 사람의 목숨을 마치 파리의 목숨과 같이 함부로 죽이는 그 임무를 빗대어 발상된 것.

살랭이 : 안전원을 말한다.

33계단 : 북한 주민의 사상을 33종으로 분류해 놓은 성분 분석표를 빈정대는말. 예 : "33계단이 까맣게 보이누만"

쌍발기 : 머리칼을 두 가닥으로 잘라서 만 처녀를 말한다.

새쓰게 : 미치광이를 빗댄 은어, 괴수 김일성이를 부르는 별칭이기도 하다.

수령은 짧고 인민은 영원해 : 북괴 치하의 대학 사회에서 쓰이는 은어로 괴수 김일성이를 쳐주하는 소리

시집살이 : 남한출신 공산주의자들이 북괴집단의 괘시를 받아야 하는 자신들의 신세를 표현한 은어. 시집살이란 1956년 남로당이 서리를 맞고 속밭이 되면서부터 북괴 치하를 시집으로 비유한

것이다.

신선주 : 인삼주의 별칭, 값이 비쌀뿐 아니라 일반 주민은 맛도
볼 수 없다하여 붙여진 이름

야마 : 극도의 식량난으로 밥을 배불리 먹지 못하던 지방의 공
무원들이 평양에 출장갔을때 여관에서 밥을 먹고 그것도 모자라
빵 파는 집에 가서 또 빵을 사먹는다. 이것을 『이중식사』라고
하는데 동료끼리는 배가 산처럼 불룩나온다하여 山의 일본 발음을
따서 『야마하러 가자』고 하며 이 『이중식사』의 반복감을 맛보
게 되어 그후 유행되었다.

양다리 동무 : 중소 분쟁이 격화되었을때 김일성이가 이쪽에 불
었다 저쪽에 불었다하며 당황하는 꼴을 보고 피수 김일성을 빈정
대던 별칭

언어에 문화성 : 상대방이 추잡스럽게 상말을 할때 좀 점잖은
말을 하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말. 문화성은 지난날의 복귀 내각의
한 쏬이었다. 예 : ① 『동무는 언어에 문화성이 없구만』 ② 『동무!
언어에 문화성을 좀 놓으시오』

엎어말이 : 원래 뜻은 냉면의 곱배기를 말한다. 북한에서는
지조없이 매춘부처럼 놀아나는 여자를 비꼬는 말로 쓰인다.

오락행위 : 야박충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벌어지는 남녀의 정사를
일컫는 은어 예 : 『오락행위로 걸렸대……』

용광로 : 풀수당원만을 입학시켜서 가르치고 있는 공산대학을 빈
정대는 말.

원산말뚱 : 원산지방에서 많이나는 명태, 북어 등을 일컫는 말.

! 호대상자 : 괴수 김일성을 규탄하는 은어, 괴수 김일성이야말로
먼저 숙청해야할 대상자라는 뜻이다.

임 그리워 : 자유대항을 그리는 북한 동포들의 애절한 속삭임.

예 : * 그리운 임을 (註 : 자유대항) 만나야 살지 *

쟁이 : 폐결핵 환자에 대한 별칭

주제비 : 북괴 지하의 불량아가 사용하는 은어로서 안전원에 대
한 별칭

죽음의 대기소 : 양로원의 별칭

지주 : 임신한 여자를 통자한 말 지주처럼 배가 부르다는데서
생긴 말

콩사탕 : * 콩산당 *이란 말의 발음을 변형시켜 만들어 낸말

예 : * 그 놈의 콩사탕 때문에 입맛 버렸어 * (註 : 즉, 콩산당때문에
일생을 잡쳤다는 뜻)

크라이막쓰 : * 카알·마르크스 *를 변형시킨 은어 예 : * 또 크라
이막쓰로군 *

표딱지 : 영웅 칭호와 훈장을 비꼬는 말 예 : * 아새끼 표딱지
하나 가지고 으시데네 *

푸주간 : 북괴 노동당의 각 기관을 비꼬는 말, 피비린내 나는
살인행위를 밥먹듯 일삼는데서 생긴 격노의 은어

하모니카 아파트 : 한칸에 한집씩 들어가도복 만들어 놓은 아파
트로 창문이 나있는 뒤에서 보면 흡사 하모니카 구멍같다고 하여

이같은 이름이 붙여졌다.

해방처녀 : 결혼전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나 결혼전에 남녀 관계가 있는 처녀를 풍자하는 말.

헛다리 찬부 : 진짜 간부는 피수 김일성 뿐이고 나머지는 다른

당 간부는 모두 헛다리라는 뜻에서 생긴말.

홀라리 천 : 강냉이 (옥수수) 잎으로 만든 옷감. 바지를 해입으면 천이 나빠 홀렁거리기 때문에 생겨난 말이다.

VI . 참고 문헌

(남한 문헌)

- 국토통일원, 북괴용어해설집, 서울, 통일원, 1971.
- 김민수, "공산권의 언어정책" 아세아연구, 1970, 3월호
- 북한언어정책 자료집, 북한문제연구소, 서울, 1973.
- 북한언어정책의 비판, 북한문제연구소, 서울, 1973.
- 북한 「발다름기」 자료집, 극동문제연구소, 서울, 1973.
- 북한용어 대백과, 국민방첩연구소, 흑백문화사, 서울, 1976.
- 북괴용어 해설집, 국토통일원, 서울, 1971.
- 북한용어 해설집 제1권, 북한문제연구소, 서울, 1972.
- 이규호, 말의 힘, 서울, 조일출판사, 1968.
- 이희승 편, 국어대사전, 서울, 민중서관 1961년판.
- 이해영, 북한언어정책의 특징과 실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발전정책연구 과정, 1974.
- 한글학회편, 큰 사전, 서울, 정음사, 1957.
- 홍연숙, "남북대화와 언어격차" 영남대 통일문제연구 제3집,
대구, 1973.
- 홍연숙, "언어와 언어정책", (한글인의 재발견 제7회, 언어와
한국인 발제논문), 크리스찬 앙카데미, 서울, 1972.10.13일
- 홍연숙, "통일을 전제한 언어정책의 방향" 통일정책 V.2,
no. 2, 국토통일원, 서울, 1976.

최광석, 『북한에 있어서의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교육』 아세아 연구 V. 13, no. 1. 1970, 3월호.

<북한문헌>

경제사전, 2권, 사회과학출판사, 평양, 1970.

김일성선집 (정기간행선) 조선로동당 출판사, 평양, 1960.

로동신문 (북한로동당기관지), 1963 - 현재, 평양

문화어 학습, V. 1 - 5 (1968 - 1972), 평양.

민주조선, (북한정부 기관지), 1966 - 현재, 평양.

위대한 수령의 품속에서, 사로청출판사, 동경, 1972.

정치사전, 사회과학 출판사, 평양, 1973.

조선말사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과학원 편, 과학원, 동경, 1962.

조선말 규범집, 사회과학원 국어사정위원회, 평양, 1966.

철학사전, 사회과학 출판사, 평양, 1970.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주체사상, 사회과학출판사, 동경, 1972.

현대조선말사전, 학우서방, 동경, 1969.

< 외국문헌 >

Fodor, Jerry A. and Jerrold J. Katz. The Structure of Language : Readings in the philosophy of Language.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64.

Hoenigswald, Henry. Language Change and Linguistic Reconstruction. Chicago : Univ. of Chicago Press.
1961.

Hymes, Dell. Language in Culture and Society : a Reader in Linguistics and Anthropology, New York : Harper & Row. 1964.

Raddatz, Fritz J. " Schwierigkeiten beim Diskutieren",
Merian Deutschland, V.25, no. 5, pp.76-82, 127.
Januar 1972.

Reich, Hans H. Sprache und Politik : Untersuchungen zu Wortschatz und Wortwahl des Offiziellen Sprachgebrauchs in der DDR. München : Max Heuber Verlag. 1968.

Sapir, Edward. Language, New York : Harcourt, Brace & World. 1921.

Saporta, Sol, ed. Psycholinguistics. New York : Holt, Rinehart & Winston. 1961.

Universals of Language, 2nd ed. The MIT Press, Cambridge, Mass. & London. 1966.